

직관 Intuition 2017



전시개요

전 시 명 : 직관 2017

전시기간 : 2017년 7월 12일(수) - 8월 6일(일)

전시장소 : 학교재갤러리 신관

문 의 : 02-739-4937~8

참여작가 : 김정태, 김미영, 송윤주, 이은우, 이혜인, 장재민

출 품 작 : 회화 16점, 조각 6점, 미디어아트 6점 (총 28점)

담 당

우정우 wcw@hakgojae.com

박미란 miran@hakgojae.com

02-720-1524~6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170712 - 20170806 직관 2017

1. 전시개요

학교재는 2017년 7월 12일(수)부터 8월 6일(일)까지 학교재 신관에서 《직관 2017》展을 연다. 지난 2010년에 열린 《직관》展의 연장선상에서 마련한 청년작가 단체전이다. 학교재는 이번 전시에서 청년작가 6인의 작품세계를 살핀다. 김미영, 김정태, 송윤주, 이은우, 이혜인, 장재민에 주목했다. 각각 확고한 주관으로 자신의 작업을 풀어나가는 작가들이다. 작업 과정에 있어 직관이 작동하는 방식도 제각기 다르다. 직관적 판단에 붓을 맡기는 작가가 있는가 하면 논리와 직관 사이에서 작업의 균형을 찾는 작가도 있다.

학교재는 이번 전시를 통하여 역량을 갖춘 청년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조명하여 주의 깊게 살펴보고, 나아가 동시대 젊은 미술계의 관점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 7회 뉴비전 미술평론상(2012, 아트인컬처)을 수상한 안소연 평론가가 전시 서문을 썼다. 학교재는 청년작가를 조명하기 위한 전시를 꾸준히 개최해 왔다. 지난해 열린 허수영(1984~, 인천) 개인전에 이어 오는 겨울에는 이우성(1983~, 서울) 개인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2. 전시주제

창작의 첫 번째 질료, 예술가의 '직관'

독일의 예술 철학자 콘라드 피들러(1841~1895)는 예술적 재능의 본질이 직관적 파악 능력이라고 말했다. 예술가의 직관은 작품 발상의 순간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다. 예술가가 논리적인 인과관계 이전에 대상을 어떻게 조형할 것인지 판단하게 하는 것이 직관이다. 같은 주제와 소재를 가지고 작업을 하더라도 하나의 작품을 위대한 작품으로 창조하게 하는 것이 직관적 판단의 힘이다.

예술가는 직관적 시선으로 대상의 근본을 파악하여 그 안에 내재해 있는 미와 균형을 이끌어낸다. 관람자가 작품을 감상하는 순간에도 직관은 논리에 앞서 발동한다. 직관은 예술작품을 매개로 하여 예술가와 관람자 사이에 공통된 정서적 경험을 전달한다. 학교재는 예술가와 작품, 그리고 관객 사이를 관통하는 직관의 실체를 통하여 예술의 본질과 그 목적에 대해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는 열정의 상징 '청년'

청년은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열정의 상징이다. 청년 미술가들은 끊임없이 기성세대와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실험적 시도를 거듭하며 동시대 미술의 발전을 주도해왔다. 학교재는 우리 시대 젊은 미술계의 관점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청년작가 단체전을 마련했다. 다음 세대를 예측하고 그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김미영, 김정태, 송윤주, 이은우, 이해인, 장재민 등 6 인의 작가를 선정했다. 서양화, 동양화, 조각,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매체로 작업하는 이들이다.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그들만의 작업방식으로 풀어나가는 청년세대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학교재 신관에서 선보이는 여섯 작가의 작품세계

이번 전시는 학교재 신관에서 열린다. 세 개 층으로 나누어진 공간에서 여섯 작가의 작품을 다채롭게 선보인다. 층마다 세 명의 작가를 배치한 구조다. 학교재 신관 1 층에 들어서면 김미영의 신작 <세일링 더 포레스트>(2017)가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온다. 흠날리는 초록의 이미지가 150 호 캔버스 두 개를 가득 메운 작품이다. 정면에 이은우의 <매끄럽고 기울어진 것>(2016)이 놓여 있다. 단단하고 무거운 재질로 보이지만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조각이다. 오른쪽 벽에서는 김정태가 이번 전시를 통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무제>(2017) 연작을 차례로 감상할 수 있다. 고해상 디지털 이미지의 효과적인 출력을 위해 PVC 필름을 사용했다.

지하 1 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송윤주의 10 호 신작 <하늘>(2017)을 마주하게 된다. 작가의 대표적 연작으로, 동양 고전 「주역周易」의 괘卦를 소재로 하여 조형한 이미지다. 지하 1 층 전시장에서는 동일 연작의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 입구의 안팎에 이은우의 조각이 놓여 있다. 벽에 걸린 작품과 바닥에 놓인 작품 모두 <회색, 노란색>(2016)이라는 동일한 작품명을 붙였지만 색상이 미묘하게 다르다. 작품마다 형태와 색상에서의 세심한 변주가 돋보인다. 이 공간에서 김미영의 신작 <그린 웨이브>(2017) 등 회화들을 살펴볼 수 있다.

지하 2 층 전시장에 들어서면 장재민의 대작 <야산 불꽃>(2017)이 시선을 압도한다. 이번 전시에서 장재민은 특유의 힘찬 붓질로 그려낸 <돌 사람>(2017), <나무 밤>(2017) 등 신작 4 점을 선보인다. <야산 불꽃>의 맞은편 벽에 걸린 이해인의 <알베르틴>(2017)은 8 점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이번 전시를 위해 제작한 연작이다. 시간과 빛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장미나무의 모습을 작품에 담아내려 한 모험적 시도가 돋보인다. 전시장 안쪽 벽에는 이은우의 신작 <빨간 책장>(2017)이 놓였다. 지난해 제작했던 동명의 작품을 새로 만들었다. 우레탄 페인트로 도색한 높은 채도의 빨간색이 작품의 기하학적 형태와 맞아떨어져 시각적으로 강렬한 이미지를 표출한다.

3. 작가 및 작품소개

대표작품



김미영 Meeyoung KIM

세일링 더 포레스트

2017

캔버스에 유채

227x182cmx2

김미영은 감각적 경험을 회화로 표현한다. 시각, 미각, 촉각적 경험과 어떤 장소에 대한 느낌, 분위기 등이 작업의 소재가 된다. 김미영에게 페인팅이란 캔버스 위에 시각과 촉각의 세계로 나아가는 통로를 지어내는 일이다. 김미영은 색의 조합에서 오는 분위기를 상상하거나 어떤 붓 터치를 사용할 것인지 계획하는 등 비교적 느슨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작업을 시작한다. 어떤 대상을 그릴지 보다 물감을 어떻게 바를 것인가에 더 집중하는 편이다. 그리고 빠르고 직관적인 붓질로 화면을 채워 나간다.

김미영은 시선의 움직임과 속도감을 회화적 방법으로 캔버스에 담아내려는 시도를 거듭해 왔다. 특히 풍경이 순간적으로 시야를 스쳐 지나갈 때에 잔상처럼 보여지는 색채와 이미지를 그려내는 데 관심을 둔다. 김미영이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세일링 더 포레스트>(2017)는 미국의 '레이크 조셉'이라는 호수에서 배를 타고 바라본 풍경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이 호수는 사방이 푸른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시야에 초록이 가득한 신비로운 장면을 체험할 수 있다. 배의 속도에 따라 시선의 초점이 또렷해졌다 흐려졌다를 반복하며 환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시각적 경험을

회화로 표현했다.

1984 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2008 년에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한국화과를 졸업하고 2011 년에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14 년에 영국 왕립예술대학교 회화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소피스트리(2015, 뉴욕), 스페이스 첩터투(2015), 레스빠스 71(2016), 이화익갤러리(2017)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일민미술관, 다이슨갤러리(런던), 원앤제이갤러리, 스페이스 K 등에서 열린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쿤스트독 라이프치히 레지던시(라이프치히, 독일)와 시테데자르 레지던시(파리)에 입주한 이력이 있다.



김정태 Jeongtae GIM

무제

2017

알루미늄 패널에 PVC 필름

44.5x79cm

김정태는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하여 새롭고 다양한 실험적 시도를 해나가고 있다. 1987 년 생인 김정태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되고 발전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체득하면서 성장했다. 그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게임, 애니메이션,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지털 매체에서 작업의 소재와 재료를 찾는다. 2010 년 이후 아이패드와 드로잉 태블릿 등의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회화 작품들을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후 적극적으로 작업에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고 있다.

김정태는 디지털 매체를 도구로 사용해 그리는 자신의 작업을 '그리기'의 범주 내에서 바라본다. 다만 그의 디지털 회화는 더이상 평면 위에 정지되어 있는 그림이 아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내에서 무한정 확장할 수 있는, 가상의 3 차원 세계를 그린 그림이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무제>(2017) 시리즈는 김정태가 '언리얼 엔진 4'라는 3D 게임 엔진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축한 디지털 가상세계 <피코>(2017)에서 추출한 장면들이다. 각 화면 중앙에 자리한 네모난 프레임 속 이미지들은 인터넷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었다. 데이터모쉬 기법을 통해 원본의 픽셀을 뒤섞어 변형한 결과물이다. 바탕이 되는 가상세계의 풍경 위에 또 다른 디지털 회화를 그려 넣음으로써 끊임없이 새로운 장면을 구성해가는 과정이다.

1987 년 서울에서 태어나 2010 년에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를 졸업했다. 2014 년도에 오픈베타공간 반지하에서 첫 개인전 《현피》를 열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세종문화회관, 아마도 예술공간, 커먼센터 등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송윤주 Yunju SONG

하늘

2017

한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53×45.5cm

송윤주의 작업은 오래된 문자와 원형의 기호를 되살려 현대 회화의 방식으로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선인들의 철학을 나름의 방식으로 탐구하고 재해석하는 일이다. 송윤주는 동양화의 맥이 되는 철학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주역」을 읽었다. 이후 세상과 자연의 원리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때마다 동양 철학서를 펼쳐 살펴 보았다. 송윤주는 「주역」에서 수많은 상징과 숫자,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 추상적 이미지들을 발견했다. 동양의 가장 오래된 수묵 추상이 바로 그 안에 있었다. 이 추상적 기호들을 작업의 소재로 택했다.

송윤주가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괘(卦)를 소재로 조형적 실험을 거듭한 결과물이다. 괘는 「주역」의 골자가 되는 글자다. 제각기 음양을 뜻하는 8 괘가 서로 관계 맺기를 통해 64 괘를 이룬다. 이 과정에서 64 개의 괘들이 저마다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데, 그러한 원리를 자신의 작업에 끌어왔다. 송윤주는 괘의 음양 기호를 이용해 상(像)을 만든다. 각각의 괘가 이룬 형상을 재조합하고 변형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내포한 의미도 따라서 변화한다. 문자로서의 괘가 지닌 기호적 의미를 중시하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조형해 나가는 것이다.

1974 년 서울에서 태어나 1998 년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를 졸업했다. 동 대학원에서 2001 년에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2010 년에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2002 년 모인화랑에서 가진 첫 개인전 이후로 중화갤러리(2004), 공화랑(2006), 갤러리 아트사이드(2009), 한원미술관(2015) 등의 다수의 기관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서울시립미술관, 조선일보미술관, OCI 미술관, 베를린 한국문화원 등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여했다. OCI 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영은미술관 창작스튜디오에서 레지던시 생활을 했다. 1998 년과 1999 년에 대한민국미술대전, 2005 년에는 송은미술대상에서 입선한 이력이 있다.



이은우 Eunu LEE

빨간 책장

2017

MDF, 우레탄 페인트

206x30.5x187cm

이은우는 일상적 사물의 재료나 특성, 그것이 다른 물건들과 맺고 있는 관계, 현실에서 통용되는 방식 등을 살핀다. 그리고 그것들을 뒤바꾸거나, 변형하거나, 결합하여 전혀 새로운 물건으로 변환한다. 그렇게 탄생한 작품을 통해 특정 사물에 대한 관습적 인식을 낮설게 한다. 이은우는 미술사에서부터 을지로 공장 현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지와 형태, 색상을 발취하고 참조한다. 기성 공산품의 모양을 차용하거나, 물건을 구성하는 재료와 생산 규격을 작업에 적용하기도 한다. 그는 재료의 표준 규격과 가공 방법, 예산과 같은 작품 제작 과정에서의 전제 조건들을 중요시한다. 작가의 계획이나 개인적 취향들이 현실적 요건이라는 하나의 필터를 거치게 되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그의 작업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기보다 오히려 현실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 맺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빨간 책장>(2017)을 포함해 여섯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빨간 책장>은 가로줄 무늬의 시공용 시트지 패턴을 오브제로 변환한 작품이다. 사물이 지닌 본래의 용도를 지우고 형태와 원리를 확대하여 새로운 대상으로 재해석했다. 원본인 시트지의 패턴은 크기와 형태가 극대화, 입체화됨에 따라 기하학적 형태의 독자적 오브제로 변모한다. 동시에 원본과는 완전히 다른 정체성인 책장으로서의 기능을 새롭게 획득한다.

198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2005년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학사를 졸업했고, 2008년에 동 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안공간 루프(2009), 갤러리 팩토리(2014), 아트선재 프로젝트스페이스(2015)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학교재갤러리의 《직관》(2010)전을 비롯해 아트선재센터, 토탈미술관, 성곡미술관, 아트스페이스 풀, InIVA(런던) 등 국내외 다수의 기관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여했다. 금천예술공장 및 반다넨 트러스트(노스 나우라, 호주), 그레이 프로젝트(싱가포르) 등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2016년에 송은미술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혜인 Hyein LEE

알베르틴

2017

이혜인의 작업은 야외 사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의 풍경화는 자연의 모습을 회화적 논리에 따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제대로 보고 경험하기 위해 그리는 그림이다. 어떤 장소를 체험하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풍경화다. 이혜인의 작업에서 장소나 대상은 그림의 촉매제가 된다. 그러나 그 이미지를 통해 어떤 주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혜인은 대상을 관찰하고 그리는 행위를 통해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회화적 가능성을

캔버스에 유채
72.7x60cmx8

살핀다. 경험과 체험을 통해 숨은 의미를 발견하는 일에 작업의 목적을 둔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알베르틴>(2017) 연작은 스물 네 시간 동안 빛 속에서 변화하는 장미 나무의 모습을 여덟 개의 캔버스에 그린 작품이다. 장미가 피어나는 시기부터 질 때까지의 모습을 담았으며, 하루 스물 네 시간을 세 시간 단위로 나누어 여덟 차례 작업했다. <알베르틴> 연작의 그림 하나하나의 작업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뿐이다. 여덟 개의 캔버스가 함께 보여질 때 비로소 작업의 문맥이 읽히며 작가가 체험한 장소와 대상으로부터 건져 올린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 '알베르틴'은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1913)의 화자가 사랑하는 여인의 이름이다.

1981년 경기도 고양에서 태어났다. 2005년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2007년에 동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브레인팩토리(2011), 대구미술관(2013), 두산갤러리(2015, 뉴욕), 소피스트리(2016, 뉴욕)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일민미술관, 인천아트플랫폼, 프로젝트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등에서 개최한 단체전에 참여하기도 했다. 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쿤스트러하우스 베타니엔(베를린) 등 여러 차례에 걸친 레지던시 생활을 통해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2007년도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로 선정되었으며 2012년도에 종근당 예술지상을 수상했다.



장재민 Jaemin JANG

야산 불꽃

2017

캔버스에 유채

227x363cm

장재민은 국내외 여러 지역을 답사하면서 보고 연상한 것들을 작업의 소재로 삼는다. 적막한 풍경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생경한 감각을 회색조 위주의 큰 붓질로 옮겨낸다. 장재민에게 그림을 그리는 일은 순간적인 결정의 연속이다. 붓을 캔버스에 대는 순간부터 떨어지는 순간까지 직관에 의존하고, 순간적 결정을 거듭하며 풍경을 재구성한다. 장재민은 본래의 풍경을 의도적으로 탈색하고, 표현적 붓질을 통해 신체적으로 개입한다. 작가의 인식과 심리를 반영한 풍경은 본래의 모습과는 다른 익명의 것이 된다.

장재민은 최근 '풍경이 기억하는 사건'이라는 주제로 회화 작품을 제작해 왔다. 그는 본래의 풍경을 회화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사건에 내재되어 있던 특이성이 보존되는 역설이 생긴다고 본다. 이번 전시에서는 500호 크기의 대형 회화 <야산

불꽃>(2017)을 포함해 다섯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야산 불꽃>은 국도 여행 중에 조경 사업이 진행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그린 작품이다. 공원묘지를 조성 중인 야산의 모습으로부터 연상한 상황들로 풍경을 재구성했다. 묘지의 형상은 지워지고 조경의 배열만 남았다.

1984년 경남 진해에서 태어나 2011년에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했다. 프로젝트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2014), 포스코미술관(2015), 금호미술관(2016), 오픈스페이스 배(2016)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포스코미술관, 하이트컬렉션, 스페이스 K 등 다수의 기관에서 개최한 단체전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4년도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로 선정되었으며 2015년도에 종근당예술지상을 수상했다.

4. 전시서문

작관 2017

새로움에 대하여

Hakgojae Gallery 2017.07.12 - 08.06

안소연
미술비평가

불쌍한, 새로운 날들의 문턱에 서서

지나간 세기와 아직 결정되지 않은 현재의 세기를 접합하는, 예민하면서도 말랑말랑한 관절을 지닌, 언제나 그러했듯 (이데올로기적) 범죄로 얼룩진 지상에 마치 어린양처럼 스스로 내버려져야만 했던, 바로 그 새로운 세대의 현전이 과거의 슬한 예언을 덮고 또 한차례 성취될 수 있을까? 나는 100년 전에, 그러니까 교박 한 세기 전에 쓰인 만델스탐 Ossip Mandelstam의 시를, 그리고 그 시로 세기에 대한 사유를 시도했던 바디우 Alain Badiou의 철학적 통찰을, 이미 시작된 새로운 세기와 대면하면서 떠올렸다.¹ 아, 2000년이라니. 벼랑 끝에 선 채 임박한 종말의 징후를 살피는 불쌍한 우리들과 그들의 몫으로 예정된 실패를 떠벌리는 예언가들의 날이

¹ 알랭 바디우, 『세기』, 박정태 옮김, 이학사, 2014.

계속되고 있다. 누구도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새로운 세기는 무력한 나태 속에서도 거짓말처럼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고 있다. 확연한 실체는 없으나 분명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

어쩌면 채 지워지지 않은 세기말의 풍경처럼, 짙은 절망과 허무로 물든 퇴폐적 분위기가 현실을 집어삼킬 듯 보였다. 이전 세기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깊고 공허한 늪에 빠져버린 우리의 일상은, 곧 들이닥칠 주체의 파산 경고와 그로 인한 불안 때문에 스스로 벗어날 그 어떤 출구도 찾아내지 못할 것 같았다. 아니, 벗어날 그 어떤 시공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위태로운 현대의 풍경은 한동안 지속됐다. 제프 니콜스의 영화 <테이크 쉘터 Take Shelter>(2011)의 허무한 줄거리처럼, 20 세기가 남긴 물질적 유산은 더 이상 한 개인의 미래마저 보장하지 못한 채 도리어 그것을 담보로 오늘이라는 현재의 시공을 끊임없이 유예시켜왔다. 하여 새로운 세기의 10 년이 완성되기도 전에, 무너진 중산층들의 일상은 앞선 세기에 수많은 죄목을 선고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적 범죄로 평범한 개인의 삶이 해체되었다는 과거에 대한 책임의식은, 아이러니하게도 새롭게 시작된 날들이 고통스런 암흑뿐임을 예언하고 있다.

이토록 불쌍한, 새로운 날들의 어두운 문턱에 서있는 “우리”는 이 폐허 속에서 또 다시 새로운 것에 대한 물음을 좇는다. 바디우가 인용했던 브레히트의 글 「프롤레타리아는 하얀 조끼를 입고 태어나지 않았다」를 다시 사유해보면, 그는 폐허 속에서 새로운 주체로서 프롤레타리아의 문화가 도래할 것임을 말했는데, 바로 종말의 때와 같은 그 폐허의 시공에서 새로운 것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는 예언적 선언에 가까웠다.² 20 세기 초의 일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뜨거웠던 20 세기를 빠져 나와 직면하게 된 서늘한 폐허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의 생성을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을까?

흐릿한, 현실과 마주함

지난 세기의 끝자락에서부터 가속화된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확산과 그로 인한 오늘날의 새로운 “시각적 유대”를 공공연히 말하는 사람들은, 황무지 같은 현실을 재설정하여 미래를 일궈낼 주체의 새로운 감각에 대해 내심 기대를 거는 듯하다.³ 또 누구는, 동시대의 시각예술에서 지난 세기의 예술적 형식들이 재출현하고 병합되는 일련의 흐름을 진단하면서 그것이 바로 과거의 이데올로기적 관습에서 벗어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새로운 작동 원리임을 앞세운다.⁴ 이처럼 미래와 단절된 채 지독히도 허망하게 시작한 새로운 세기는, 유독 빈곤하고 불확정적인 자신의 “현실”에 주목하고 있다. 말하자면, 앞선 세기가 베일에 가려진 “실재”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부추겼다면, 새로운 세기의 첫 장은, 도리어 실재를 상상할 수조차 없이 암흑 혹은 블랙홀처럼 봉인 해제된 현실에서 스스로를 재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감각과 주체성을 추구한다.

² 앞의 책, pp. 88-90 참고.

³ 히토 슈타이얼, 『스크린의 추방자들』, 김실비 옮김, 워크룸 프레스, 2016, pp. 12-13.

⁴ 니콜라 부리요, 『포스트프로덕션』, 정연심·손부경 옮김, 그래파이트온핑크, 2016, p. 14.

때문에, 2010년대 한국미술의 지형을 흔들어 놓은 굵직한 파동을 체험한 이들이라면 누구나 공유하고 있을 새로운 시각적 감성 혹은 감각이라는 화두로 망설임 없이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재 갤러리가 2010년에 이어 두 번째 기획한 전시 《직관 2017》은, 흐릿하게 열화된 현실과 마주하려는,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세기의 시각적 유대와 그것이 창출하는 지속적인 가치를 가늠해 보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번 전시에는 여섯 명의 작가가 참여하였는데, 그 중 다섯 명이 80년대 생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어떤 세대의 특이성을 나타내는 절대적인 범주로 작용하기 보다는, 역으로 그 범주 안에 종속돼 있는 동시대적 감각으로서 주체들의 새로운 인식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스스로를 감각하는 사물로 제시하고, 사물을 감각할 줄 아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야 말로 동시대적 감각의 새로운 경험”이라고 진단한 페르니올라 Mario Perniola의 말을 인용해, 그러한 감각이 그려내는 이미지들은 현실의 재현이 아니라 “현실세계의 파편”임을 강조한 슈타이얼Hito Steyerl의 논의와 붙여놓고 살펴볼 만하다.⁵

전시 참여 작가 중 이해인은, 똑같은 크기의 캔버스 여덟 개로 <알베르틴 Albertine>(2017) 연작을 완성했다. 하루 24시간을 8 조각으로 나눠서 새벽 5시부터 해당 시간대에 3시간동안 마당의 장미넝쿨을 그린 이해인은, 늘 그랬듯 현실의 풍경과 마주한다. 하지만 그가 주목해온 것은 현실의 진부한 풍경이 아니라, 그 풍경의 현실적 조건을 경험해내는 스스로의 주체적인 감각이었을 거다. 그는 현실을 재현하기 위해 마련된 회화의 고정된 자리를 거부하고, 도리어 표현할 수 없는 것, 즉 현실의 파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기꺼이 불확실한 풍경과 나란히 서서 그것과 마주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따라서 펼쳐놓은 8점의 풍경 그림은 모두 진짜도 가짜도 아닌, 실패도 성공도 아닌, 이미지의 불확정적인 존재 조건을 암시한다.

김정태의 <무제>(2017) 연작은 데이터모쉬 Datamosh 기법을 이용해 구현한 디지털 이미지다. 이번 전시에서는 55인치 혹은 30인치 모니터 화면 크기로 각각 최적화되었는데, 사실 이름조차 없는 이 이미지 출력물은 그가 최근 구축해 놓은 디지털 가상세계 <피코>(2017)에서 꺼내온 것들이다. 자신이 직접 그린 회화를 디지털 파일로 저장·압축·확장하여 일련의 데이터 표류와 이미지의 극단적인 소모를 통해 변형시킨 디지털 회화는, “피코”라는 가상공간 안에서 이미 극단적으로 절개된 이미지 복제품의 형태로 부유하고 있다. 그의 말마따나, 여러 조건들이 현실에서 다루면 너무 크고 어려운데 이 안에 넣었다가 빼면 무제의 디지털 회화처럼 한결 다루기 쉽고 편리해진다. 원본과 연동되어 있으나 이미 그것을 초월하여 극도로 가볍고 흐릿해진 한 더미의 잔해처럼 말이다.

이은우도 그렇다. 그는 현실에서의 주어진 조건을 살짝 비틀어 그 조건들을 원본 삼아 흐릿한 가짜 “물건들”을 생산한다. 전시된 작업들을 보면, 돌 같은 것, 나무 같은 것, 책장 같은 것, 탁자 같은 것 등 진짜를 대신 하는 가짜, 원본을 효율적으로 열화시킨 다수의 모조품이 실제의 공간을

⁵ 히토 슈타이얼, 앞의 책, pp. 59-61 참고.

그렇듯하게 차지하고 있다. 그는 마치 펼쳐놓은 이케아 카탈로그처럼 더 이상 새로울 게 없이 규격화된 현실을 데이터 삼아, 자신이 구축한 임의의 체계를 빠르게 통과해 어디에도 없는 매우 표피적이면서 압축된 형태의 실물로 구현시켰다. 진짜가 어딴냐는 그의 농담 섞인 물음을 생각해 볼 때, 어쩌면 흐릿한 현실을 마주하는 그의 시선에는 <회색, 노란색>(2016), <빨간 책장>(2017) 등의 작업처럼 일련의 추상적인 형태와 색의 더미가 더 현실적인 존재로 지각될 수도 있었을 거다.

선명하게, 지워버린 길들

기억에 기반한 현실의 풍경을 그려왔던 장재민은, 뜻밖에도 더욱 노련해진 붓질을 통해 형태를 구축하려는 충동 대신 대상을 지우고 뭉개버리는 극단적 상황으로 우회해버렸다. 그는 자신의 그림 그리는 행위가 계속해서 형태를 망치고 다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의 연속이라 말한다. 그는 이제 캔버스 바깥을 더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말을 덧붙였는데, 이는 내게 현실에서의 오작동이나 누락된 혹은 뒤엎힌 시간성 등을 매우 주체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들렸다. 현실의 풍경에 주목하되, 그 풍경 안에서 기묘하게 지워진 길, 즉 의미의 부재를 향해 줄달음치겠노라는 작가의 의지는 <야산 불꽃>(2017)처럼 큰 그림 안에서 형태를 방해하며 도리어 그것을 에워싸는 납작하고 추상적인 붓질로 구체화되고 있다.

김미영의 추상(적) 회화도 이와 비슷한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 <세일링 더 포레스트 Sailing the Forest>(2017)나 <선라이트 가든 Sunlight Garden>(2016)을 보면, 그의 그림에서는 시각적 역전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 직관적인 붓질을 매우 강조하고는 있지만 그 조형적 근거가 때론 이성적인 사유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평평한 화면에서 재료의 물성을 한껏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표면의 물성을 초월해 이상할 만큼 깊숙한 공간감을 과시하기도 한다. 그것은 아마도 시선을 붙잡아 두는 고정된 주체의 자리를 애초에 포기하고, 부유하는 관찰자의 시점처럼 끊임없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흩어지며 난반사되는, 현실에서의 파편화된 시각경험을 캔버스 화면 안에서 시도해보려는 게 아니었을까.

끝으로, 송윤주의 경우 중국의 유교 경전인 주역(周易)을 참조해 64 개의 괘(卦)를 자신의 작업에서 일련의 추상적인 이미지로 다루고 있다. 그는 추상적인 기호의 조합으로 새로운 의미를 능동적으로 생성시킬 수 있다는 문자의 작동 원리에 주목하고 있지만, 그 추상적인 기호의 권위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나온 오늘의 시공에서 그것은 매우 가볍고 표피적인 이미지만 남겨놓은 채 의미의 부재를 한없이 표출한다. 새로운 주체의 시각 패러다임에 있어서 상징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의 유효성을 환기시킨다. 때문에 견고한 추상적 형태들이 무한히 반복되어 구축될 수 있는 여지를 언뜻 보이는 것 같지만, 오늘의 시공에서 그 추상성이 강조되면 될수록 의미의 부재는 더욱 강하게 체감될 것이다.

이브 본푸아 Yve Bonnefoy 의 시에서 바디우가 인용해온 "지워버린 길들"이라는 표현은, 기묘한 미소로 실재의 의미 부재를 향해 달려가는 열정적인 20 세기의 풍경을 함축하고 있다. 바디우는 부재의 상태에서 알 수 없는 희망의 문턱을 넘는/넘어야 하는 아이러니를 20 세기의 주체적 격언이 아닌가 사유한다. 또한 만델스탐의 시 마지막 부분을 인용하면서 20 세기는 "감옥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날"이었음을 말한다. 그리고 새로운 날들의 시작은, "관절이 굳어버린 하루하루의 무릎들을 피리(예술)가 하나로 모아야" 성사된다. 지금은 21 세기다. 100 년이 훌쩍 지난. 그렇게 새로 시작된 날들이 잿빛 폐허가 되어 오늘 우리 시대의 토양이 되었다. 어쩌면 세기의 비극이 다시 반복된 것도 같다. 우리는 지금, 지워버린 길들 위에서, 흐릿한 현실과 마주해야 하는, 그리고 (바디우의 표현을 빌어) 미래의 약속도 순수한 향수도 아닌 "그대로의 기다림" 속에서 현실의 피리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이 불쌍한, 새로운 날들의 문턱에 서서.

5. 작가약력

김미영

- 1984 서울 출생
 - 2008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한국화과 학사 졸업
 - 2011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동양화과 석사 졸업
 - 2014 영국 왕립예술대학교 회화과 석사 졸업
- 서울에서 거주 및 작업 중

개인전

- 2017 웬 온 웬, 이화익갤러리, 서울
- 2016 선라잇 하우스, 레스빠스 71, 서울
- 2015 보스 사이즈 나우, 스페이스 챕터투, 서울
그린 페인팅스, 소피스트리, 뉴욕
- 2012 단절된 연결, 갤러리도스, 서울

단체전

- 2017 직관 2017, 학교재갤러리, 서울
뉘앙스, 갤러리기체, 서울
코쿤, 스페이스 K, 과천
- 2016 노상준 X 김미영 오픈스튜디오, 보우아트트러스트, 런던
틀즈, 원앤제이갤러리, 서울
우연히 만난 살롱, 에이치앤아트, 서울
- 2015 브레이크웨이스, 아트인더오피스 바이 에이치앤에이 파트너스, 서울

- 2014 아트 그라듀에잇 프라이즈, 허버트스미스 프리힐즈, 런던
목 스페이스 어워드, 목 스페이스, 런던
쇼 RCA, 왕립예술대학교, 런던
섬머 익지비션, 왕립예술원, 런던
RCA 시크릿, 다이슨갤러리, 런던
- 2013 PNTG 노뎀버, 헨리무어갤러리, 런던
오픈스튜디오, 시테데자르, 파리,
유목론, 오픈 플랜, 런던
RCA 시크릿, 다이슨갤러리, 런던
노츠 투 셸프, 다이슨갤러리, 런던
시간의 귀, 신한갤러리, 서울
- 2012 기억의 정치, 자하미술관, 서울
- 2011 쿤스트독 아티스트 클러스터 2011, 갤러리 쿤스트독, 서울
- 2010 원더풀 픽쳐스, 일민미술관, 서울

레지던시

- 2016 시테데자르, 파리
- 2013 시테데자르, 파리
- 2011 쿤스트독 라이프치히, 라이프치히, 독일

수상

- 2014 허버트스미스 프리힐즈 아트 그라듀에잇 쇼트리스트, 런던
목 스페이스 어워드 파이널리스트, 런던
- 2013 파리 스튜디오 어워드 워너, 왕립예술대학교, 런던

소장

- 광주요, 서울
- 에이치앤에이파트너즈, 서울
- 한국농어촌공사, 나주
- 용원골프클럽, 창원
- 롤랜드 코완 아키텍트, 런던

김정태

- 1987 서울 출생
- 2010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학사 졸업

서울에서 거주 및 작업 중

개인전

2014 현피(現實+Playerkill), 오픈베타공간 반지하 B½F, 서울

단체전

2017 직관 2017, 학교재갤러리, 서울

2016 ACC 네트워크 플랫폼: 아시아 쿨라 쿨라-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시대정신: 비(非)-사이키델릭; 블루, 아마도예술공간, 서울

2015 분석적 목차, 케이크갤러리, 서울
퓨처스타일, 성북예술창작터, 서울

굿-즈, 세종문화회관, 서울

오늘의 살롱, 커먼센터, 서울

오토세이브: 끝난 것처럼 보일 때, 커먼센터, 서울

던전, CC101, 서울; 공간 사일삼, 서울; 개방회로, 서울

송윤주

1974 서울 출생

1998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학사 졸업

2001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석사 졸업

2010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박사 수료

2017 인천대학교 조교수

서울, 경기에서 거주 및 작업 중

개인전

2015 이상세계(以象世界): 상으로 본 세계, 한원미술관, 서울

2012 소문(素文), 호암교수회관, 서울
별길, 63 스카이라트미술관, 서울

2011 문자산수, 가회동 60, 서울

2009 문자연(文字宴), 갤러리 아트사이드, 서울

2007 소(素)-풀기, 갤러리 담, 서울

2006 소(素)-상: 비결정적 형상, 공화랑, 서울

2004 소(素), 중화갤러리, 도쿄

2002 소(素), 모인화랑, 서울

단체전

- 2017 직관 2017, 학교재갤러리, 서울**
 2016 Cre8tive Report, OCI 미술관, 서울
 관악사 문자 동행전, 웨이팡대학교 미술관, 산둥, 중국
 존재의 의미를 찾아서,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5 천상에 펼쳐다, 삼탄아트마인, 정선
 소마 드로잉: 무심(無心), 소마미술관, 서울
 경계를 넘어서, 인도 한국문화원, 뉴델리
 2014 천애약비린전(天涯若比隣展),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인천
 한국화의 변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한국화, 힐링을 만나다: 태풍, 미묘한 순간, 갤러리 그림손, 서울
 2013 한국화, 힐링을 만나다: 소동(素動), 갤러리 그림손, 서울
 드로잉, 생각의 시작, 리앤박갤러리, 파주
 한국현대미술 - 자유아재(自有我在),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2 가지 않은 길, 가일미술관, 양평
 크리에이션 인 아트: 지구의 반란 - 귀환, 회복, 만남, 베를린한국문화원, 베를린
 2011 아트코러스 - 21C 현대미술의 조명,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현대미술 100 인,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서울대학교미술관 기증전,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2010 축지도: 가벼운, 깨지기 쉬운, 유연한,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아트 인 다이얼로그, 서울대학교 스페이스 599, 서울
 블루 스타, 서울대학교 갤러리 판코, 서울
 2009 한국화의 현대적 변용, 예술의전당, 서울
 삼국지(三國 G) - 회화 그 표현의 중계(中界), 한전아트프라자 갤러리, 서울
 마이 퍼스트 컬렉션, 금산갤러리, 파주
 다섯 개의 점, 충무아트홀, 서울
 2008 스틸니스 바이 프랙티스, 키미아트, 서울
 강화별곡: 살어리 살어리랏다, 부평역사박물관, 인천
 그림의 대면 - 동양화와 서양화의 접경, 소마미술관, 서울

레지던시

- 2017 영은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경기도 광주
 2016 OCI 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인천

수상

- 2005 송은미술대상 입선, 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1999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98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소장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과천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서울
외교부, 서울
여주시청, 여수
한화 호텔 앤 리조트, 서울

이은우

1982 서울 출생
2005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학사 졸업
2008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석사 졸업
서울에서 거주 및 작업 중

개인전

2015 긴, 납작한, 매달린, 아트선재 프로젝트스페이스, 서울
2014 물건 방식, 갤러리팩토리, 서울
2009 사건의 지평선, 대안공간 루프, 서울

단체전

2017 직관 2017, 학교재갤러리, 서울
에이피맵 2017: 미스틱 벨스, 오설록 티 뮤지엄, 제주
가족 보고서, 경기도미술관, 안산
우연히도 다시, 밤, 우민아트센터, 청주
신소장품,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6 송은미술대상, 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74cm, 누크갤러리, 서울

2015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 하이트컬렉션, 서울
혼자 사는 법, 커먼센터, 서울
풀이 선다, 아트스페이스 풀, 서울
타임 쇼, NTU CCA 레지던시, 싱가포르
아파트 인생,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 2014 창원조각비엔날레, 창원
- 2013 적합한 종류, 커먼센터, 서울
 근성과 협동, 홍은주와 김형재의 스튜디오, 서울
 오픈 스튜디오: 쫓겨난 예언자, 만드는 세계, 금천예술공장, 서울
 버려지고 흩어진 것에 아쉬워하는 - 전시의 흔적들, 금천예술공장, 서울
 아직 모르는 집, 아트스페이스 풀, 서울
- 2012 언피니시드 저니, 카이스갤러리, 서울
 플레이타임, 문화역서울 284, 서울
 오픈 인덱스, 아트선재센터, 서울
- 2011 생각의 지도, 한국예술종합학교 갤러리, 서울
 어바웃 북스: 셀 수 없는 모음, KT&G 상상마당, 서울
- 2010 젓과 꿀, 한국예술종합학교 갤러리, 서울
 이중의 신기루 파트 2: 여행자의 꿈, InIVA, 런던,
 직관 2010, 학교재갤러리, 서울
- 2009 소설 01: 이준호()를 찾습니다, 테이크아웃드로잉 아르코, 서울
 케 세라 세라, 토탈미술관, 서울
- 2008 에브리데이 이즈 낫 더 세임, 비즈아트센터, 상하이, 중국; 갤러리 175, 서울
 출판기념회, 갤러리 팩토리, 서울
 에브리데이 아트, 성곡미술관, 서울
- 2007 막토 이야기, 아트스페이스 풀, 서울
 사람들은 자기 집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다, 갤러리 175, 서울
- 2006 썸웨어 인 타임, 아트선재센터, 서울
 여류(女流 | 勵謬)작가, 갤러리 175, 서울
- 2005 러브하우스傳,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안양
 석수시장 프로젝트,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안양

레지던시

- 2015 그레이프로젝트, 싱가포르
- 2013 반다넌트러스트, 노스 나우라, 호주
- 2012 금천예술공장, 서울
 홍은예술창작센터, 서울

수상

- 2016 송은미술대상 우수상, 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소장

-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송은문화재단, 서울

이혜인

- 1981 경기도 고양 출생
- 2005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학사 졸업
- 2007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석사 수료
- 서울에서 거주 및 작업 중

개인전

- 2016 골든 트리 컴퍼니, 갤러리기체, 서울
어 트래블 저널, 소피스트리, 뉴욕
- 2015 완벽한 날들, 두산갤러리, 뉴욕
- 2014 두 번째 삶, 아트스페이스 반줄, 서울
- 2013 완벽한 날들, 대구미술관, 대구
스케치북, 쿤스틀러하우스 베타니엔, 베를린
- 2011 네 뺨에 석양, 브레인팩토리, 서울
- 2010 빈 주소 - 경의선 능곡역 앞 들녘, UNC 갤러리, 서울
- 2008 비정한 세계, 표갤러리, 서울
- 2007 지붕위에 서다, 서울대학교 우석홀, 서울

단체전

- 2017 직관 2017, 학교재갤러리, 서울
빈 먼 곳, 백아트, 서울
감각의 논리, 갤러리시몬, 서울
- 2016 장소와 각주, 금천예술공장, 서울
삼키기 힘든, 두산갤러리, 서울
언더 마이 스킨, 하이트컬렉션, 서울
- 2015 아티스트 파일 2015: 동행,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국립신미술관, 도쿄
회화 - 세상을 향한 모든 창들, 블루메미술관, 파주
트라우마의 기록,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고양
- 2014 마음의 기억, 단원미술관, 안산
보이지 않는 도시, 아워몬스터, 서울
생명 수업: 세상에게,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마술 산 아래, 스페이스 매스, 서울
오늘의 살롱, 커먼센터, 서울
사회적 풍경, LIG 아트스페이스, 서울
구경꾼들, 두산갤러리, 서울

- 2013 백령도 - 525,600 시간과의 인터뷰,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매혹,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갤러리 잔다리, 서울
패러렐 월드 - 예술적 풍경, 자하미술관, 서울
- 2012 종근당 예술지상: 회화, 실재의 창조와 해석 그리고 치유, 팔레 드 서울, 서울
방향하는 자가 속지 않는다, 텔레비전 12, 서울
- 2011 달의 조각 - 이해인, 정재욱,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몹쓸 낭만주의, 아르코미술관, 서울
- 2010 짓다 - 백우진, 이해인, 프로젝트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서울
교환가치의 이미지, 아트스페이스 휴, 서울
- 2009 슬럼 메가폴리스, 대안공간 반디, 부산
찾아가는 미술관,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영천; 음성문화예술회관, 음성
원더풀 픽처스, 일민미술관, 서울
- 2008 젊은 모색,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2007 아트 인 시티: 기억하는 벽, 철암역, 태백
송은미술대상 선정작가전, 인사아트센터, 서울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전, 예술의전당, 서울
- 2005 공간의 생산, 갤러리 175, 서울
자몽(自夢), 스페이스 셀, 서울
- 2003 표류: 한남동 프로젝트, 한남동 일대, 서울

수상

- 2012 종근당 예술지상, 종근당, 서울
- 2007 중앙미술대전, 중앙일보, 서울

레지던시

- 2015 두산레지던시 뉴욕, 뉴욕
- 2014 금천예술공장, 서울
- 2012 쿤스틀러하우스 베타니엔, 베를린
- 2011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 2009 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 고양

장재민

- 1984 경상남도 진해 출생
- 2011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학사 졸업
- 2017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석사 수료

서울에서 거주 및 작업 중

개인전

- 2016 플로팅 컨테이너, 오픈스페이스 배, 부산
비린 곳, 금호미술관, 서울
- 2015 이중의 불구, 포스코미술관, 서울
- 2014 시간을 잃어버린 풍경, 프로젝트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서울

단체전

- 2017 직관 2017, 학교재갤러리, 서울
- 2016 청년미술프로젝트, 엑스코, 대구
랜드.인.사이트, 스페이스 K, 과천
- 2015 오늘의 살롱, 커먼센터, 서울
회화 - 세상을 향한 모든 창들, 블루메미술관, 파주
두렵지만 황홀한, 하이트컬렉션, 서울
- 2014 동아시아 국제교류전: 개인으로부터의 정치, 김해문화의전당, 김해
더 그레이트 아티스트, 포스코미술관, 서울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전, 예술의전당, 서울
- 2013 모어 스페이스: 2013 온고잉 아티스트 인큐베이팅 전시 프로그램, 오픈스페이스 배, 부산
신진작가 공모전, 한국은행 한은갤러리, 서울
- 2012 니가 옮겨간 기억, GS 타워 더스트릿 갤러리, 서울

수상

- 2015 종근당 예술지상, 종근당, 서울
- 2014 중앙미술대전, 중앙일보, 서울